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록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3월 22일(금) 10:30

장 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3층 회의실

○ **총무담당관 정웅**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간사 총무담당관 정웅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2024년도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장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운영위원장협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대표단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청취하고 2024년도 상임위별 국외 정책 연수 계획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위원장님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 **양용모 위원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봄.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춘래불사춘이라고 아직 봄이 안 온 것 같습니다. 한 2개월 정도 뽕쥌. 다시 만나서 반갑고요. 거의 저희 위원회 임무가 거의 끝나가는 것도 같습니다. 마무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의회 전반기에 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계획하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청취 안건으로서 2건, 운영위원장협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하고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도의회 대표단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이 두 안건을 청취하고 오늘 심사 안건으로서는 4가지, 행정

자치위원회 국외정책연수계획, 환경복지위원회 국외정책연수계획, 농산업경제위원회 국외정책 연수 계획,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그다음에 교육위원회가 함께 가는 국외정책 연수 계획을 심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하죠.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담당관 정웅**

네. 성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으로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에 따라 오늘 회의는 재적의원 12분 중에 8분이 참석해 주심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의 단서에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 대상인 공무 국외출장 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회피 규정에 따라 상임위별 국외 정책 연수 당사자인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상임위 안건 심사 시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장님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양용모 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드린 것 같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의

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를 선포합니다.

신현관 운영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운영 위원장 협의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관 팀장

운영전문위원 신현관입니다. 2024년도 대한 민국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1쪽부터입니다. 먼저 출장 목적은 미국과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운영 시스템에 대한 비교를 통해 새로운 정책 개발 및 상호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미국의 주민을 위한 복지정책, 문화산업 등 분야별 선진 정책을 연구하고 현장 시찰을 통한 벤치마킹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출장 기간은 2024년 1월 8일부터 17일까지 7박 10일이었으며, 지역은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미 서부 3개 지역이었습니다.

출장 인원은 각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수행 직원 등을 포함 총 28명이었으며, 우리 도의회에서는 운영위원장과 운영전문위원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쪽 주요 방문 기관으로는 첫 번째로 샌프란시스코 내에 위치하며 미 서부의 철도, 항공 해운의 거점 도시인 오클랜드 시청과 시의회를 방문, 도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교통 및 물류 등 중장기 계획 청취와 현 시장의 주요 실책인 인신매매 자문위원회 운영상황 등 주요 정책 현황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오클랜드 시의회의 경우 8명의 시의원 으로 구성되었는데 우리와 다르게 시의회에서 예산, 결산 의결, 조례 제정 등 입법 외에 시정 업무까지 직접 처리하는 통합형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과 다른 시의회에서 입법 활동을 하고 이를 행정에 적용하는 통합형 의회의 운영

체계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누었으며, 각각의 지방의회 운영의 장단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막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향후 운영 방향으로 접목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 샌프란시스코 복지국 산하 장애인 및 노인서비스부를 방문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 및 장애인 등 시민들의 복지 지원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주택 지원 등의 운영 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에서도 현안인 노인복지를 위한 4개 주요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 들었는데, 점점 더 고령화되어가는 전북의 현황과 맞물려 고민의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로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인종이 살며 미국 전체에서 뉴욕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LA시청을 방문해서는 다인종의 저소득의 노숙자가 많은 도시에 대한 노숙자 치료 및 서비스 관리 방안, 저렴한 주택 제공 등 서민 지원 정책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LA는 커다란 도시 경제 규모와 따뜻한 지중해성 기후와 어우러진 휴양지와 자유로운 분위기에 힘입은 문화산업이 발전한 도시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와 반면 악화 된 치안 문제와 오래되고 심각한 노숙자 문제, 지나치게 개방적인 분위기 등 여러 가지 모습을 동시에 지닌 모순적인 도시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전북도 점차 늘어나는 이주민들에 대한 지원 및 정착 등에 대해 어떤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이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볼 필요성이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도 친숙한 다저스 스타디움을 방문하였는데, 1962년 개장 후 현재 까지 운영 중이며, 비단 야구장뿐만 아니라

LA 다저스 역사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창단 이후 지금까지의 스토리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역사적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스포츠뿐만 아니라 도시의 대표적인 문화 향유 공간, 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전북도 전통을 가진 스포츠 구단을 육성하여 문화산업과 연계한 마케팅을 추진하는 방안의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국외연수는 미국의 의회 정치 복지 문화산업 등의 선진 정책을 벤치마킹한 사항에 대해 우리 전북의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앞으로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양용모 위원장

신현관 운영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경주 위원님 마이크 켜고요.

○ 김경주 위원

요청 사항 전달 및 질의응답이 있는데 요청은 뭘 요청했는가요?
샌프란시스코 시청이나 시의회 방문하셔서

○ 신현관 팀장

저기 질문 한 번 다 잘 못 들었습니다.

○ 김경주 위원

아니 샌프란시스코에서 오클랜드 시청이나 이런 데 이제 방문하셨잖아요 시의회 그래서 뭘 요청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일단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고용기회 제공 정책 이렇게 질의응답하면서 이런 몇 가지 네 가지를 요약해 주셨는데 그래서 어떤 정책을 썼는지 이런 거를 우리 전라북도에 어떻게 가져와서 접목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더 연구나 고민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 신현관 팀장

일단 오클랜드가 교통 및 물류의 거점 도시여서 현재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해서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도입해서 운영하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지금 구축하고 있는 계획 자료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장이 인신매매 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상당한 열정을 가지고 계셔서 자문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렇게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저희 도에도 혹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협의회 차원에서 요청해가지고 저희도 이제 자료를 받아서 나중에 이제 정책을 입안한다거나 하는 데 반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 말씀 주신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보고 때 말씀드린 휴먼 서비스 에이전시라고 장애 및 노인복지부에서 센터장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거기는 이제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제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NGO나 이런 사회단체하고 자체적으로 지역사회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가지고 노인 돌봄 서비스나 그다음에 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이런 정책들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정책 개발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저희한테 보내달라고 해서 이제 저희도 그 노인 정책에 한번 반영해 볼 계획으로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 김경주 위원

상당히 특이한데 지자체의 예산이 줄어드니까 연방정부나 지자체 예산이 줄어드니까 NGO나 비정부기구 이렇게 단체들이 돈을 내서 고용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거예요.

○ 신현관 팀장

일자리도 창출하고 저희처럼 이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저희는 이제 그때 듣기로 좀 그런 서비스 업무를 하려면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게 좀 획득하는 게 좀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미국에서는 그것보다는 노인 복지가 중요하다고 봐서 이제 자격증 획득에 이렇게 관문이 어렵지는 않고 대신에 복지 복지 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만큼 또 수당도 주려고 노력해서 그런 부분은 이제 노인복지를 위해서 저희 쪽도 좀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때 위원장님들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계속 연구해 가는 것 같았습니다.

○ 김경주 위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단순한 보고 형식인 것 같아서 좀 구체적으로 거기서 어떤 걸 끌어왔는지가 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이거를 우리 도에 어떤 것들을 어떻게 좀 접목시켰으면 좋겠다 구체적인 정책으로의 어떤 제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 양용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손주화 위원

저 질의하겠는데요. 저희 연수 전에 이제 심의위원들한테 서면으로 돌린 자료하고 비교를 좀 해봤을 때 연수 일정하고 방문지가 전부 다 변경이 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 한두 곳이 변경된 게 아니고 모든 기관이 변경이 됐고 지금 일정도 지금 공식 일정들을 이틀로 몰아서 나머지 일정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뭔가 공식적인 부분들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기본적으로 심의위원들한테 자료를 넘겨줬을 때하고 너무 많은 게 변경돼서 이걸 어떻게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될지 한번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변경된 이유도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현관 팀장

우선적으로 이제 처음 최초 국외여행 심의 위원회 할 때 일정하고 향후에 이제 이 일정 자체를 저희 주도적으로 도에서 주도적으로 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17개 시도 운영위원회에서 가다 보니까 협의회 차원에서 일정 같은 건 조율하고 이랬는데 당초에 이제 저희가 심의 심사받을 때 말씀드렸던 기관들하고는 이제 향후 조율 과정에서 약간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대신에 이제 그 출장 목적에 맞게 미 서부 LA라든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도시 중 시의회 중에 그래도 이제 그 일정 중에 방문해서 저희가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일정으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 손주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게 연수 목적지하고 연수 대상이 불분명하다는 걸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러한 현상이 지금 저는 대한민국 시도위원회 협의회에서 보내는 이런 공문 연수들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 올라오는 보고서에서는 연수 목적과 대상이 굉장히 특히 더 불분명한 지점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제시를 한 거하고 이렇게 모든 과정들이 다 바뀌는 것들이 어 실질적으로 그럼 처음에 복적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 그러니까 취지는 비슷하다고 하겠지만 다른 결

과 보고를 가지고 온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위원장 협의
회나 이런 곳에서 대한민국 시도위원회에서
보내는 이러한 공모 출장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 심사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불신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신현관 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원님 말씀에 동
의 공감하고요.

근데 이게 이번 같은 경우에는 협의회 차원
에서 처음에 기관을 섭외할 때 조금 처음에
했던 그 방향으로 잘 추진이 안 돼서 이제
그 부득이하게 장소 장소나 기간을 변경한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는 이제 그 처음에 이
제 그 방문 목적이나 이런 거에 맞게 그렇
게 앞으로 추진되도록 저희 도에서도 건의
를 하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용모 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기 위원님

○ 김영기 위원

저는 어차피 이 이견 길게 하고 싶지 않거
든요. 이 파트는. 여기가 전혀 주도성을 발
휘하지 못하는 여행에 네트워크 차원에서
참여하니까 그런 저는 궁금한 게 17개 광역
시도 운영위원장 중에도 다섯 분이 참석을
안 했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 상당히 많은 분이
참석을 안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네트워크
와 사교 목적일 텐데 이런 데는 이 내용을
채우는 건 내가 볼 때는 대부분 형식인 것
같고 이렇게 다섯 군데가 중요한 데가 안
간다는 건 이게 점점 형식화된다는 거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많이 안
가버리면 교류도 못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
습니다. 다 가게 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진
짜 교류 필요성이 없으면 없애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어중간하게 가서 상당
히 서울도 안 왔고 뭐 이런 거 보면

○ 신현관 팀장

제일 이상적인 건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
장님들이 다 참석해서 서로 교류도 하고 이
제 목적에 맞는 공무국외 연수를 갔다 오는
게 제일 좋은데요. 각 시도별로 또 상황이
있다 보니까 또, 연초가 가장 그래도 많이
참여하실 수 있다고 봐서 이렇게 1월에 추
진을 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이제 몇 개 시
도에서는 시도별로 상황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 김영기 위원

시기도 선거 앞두고 있는 시기라 연초도 바
빳을 것 같은데 1월달에 그 시기만 하면

○ 신현관 팀장

그래도 이제 17개 시도에서 이렇게 운영위
원장 협의회에서 갈 수 있는 가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가 1월 연초여서 그다음부터 회
기가 계속 시작되고 있는

○ 김영기 위원

그것도 지금 우리 선생님한테 질문을 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왕 하려면
다 참석할 수 있는 한두 명 정도는 몰라도
다섯 군데가 참석 안 했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상식선에서 좀 많이 참석 안 한 것 같거
든요.

그래서 많이 참석. 할려면 많이 참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양용모 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실 말씀 하세요.

○ 김경주 위원

제가 조금만 덧붙이자면, 이게 명색이 그래
도 우리나라 17개 지자체 의회 위원장들이
가는 출장인데 이렇게 읽다 보면은 가서 그
냥 듣다 보니 이런 건 좀 어떤 거냐 이런
거 좀 알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요청하고
그런 것 같아요. 자료도 좀 보내달라. 그러
니까 가기 전에 17개 시도의회에서 뭘 알고
싶은지 사전에 좀 조사를 해서 수요를 취합
해서 그리고 이제 그중에 몇 개를 추려서
가는 기관에다가 우리가 이런 걸 좀 보고
싶다. 이런 걸 좀 알고 싶다. 좀 자세한 내
용과 안내도 부탁한다. 그리고 또 고민해서
또 상호 어제 뭐 협력할 거 있으면 그런 부
분에 대해서도 미리 다 얘기를 해서 거기
가서는 사실 듣고 그 자료 찾아오고 그다음
에 이제 어떤 협력 각서 같은 거 뭐 이렇게
협의를 같은 거 처리하고 그렇게 정도라도
해야지 가서 그냥 우하고 가가지고 들어보
고 거기서 조금 궁금한 거 질의 응답하고
여기 와서 거의 소감문 수준으로 이렇게 보
고서 쓰는 거는 사실은 국민들이 이거 한
번씩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 낭비다라
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냥 그 뭐죠?

그냥 여행 갔다 오는 그런 수준으로 뿐이
안 미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다음부터라도
이런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경
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또 그 이미지도 의
원들의 그런 외유 출장에 대해서 이미지도
안 좋은데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가서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오고 갔다 와서도 뭘
가 그 조례를 만들든가 어떤 도의 정책권을
한다든가 그러면 훨씬 더 건강하고 생산적
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신현관 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양용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 해외연수 주관
을 어디서 했어요?

○ 신현관 팀장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 주관했습
니다.

○ 양용모 위원장

협의회를 했는데 협의회장이 다 맨날 모여
가지고 해서 안 할 것 아니에요

○ 신현관 팀장

협의회 안에 이제

○ 양용모 위원장

의사2과장 어디 의사2 장 협의회 의사2 과
장이 어디예요?

아니 소속이 어디냐고? 아 안에가 따로 있
어요? 그전에도 보면 운영위원장 하면은 그
냥 해외 한 번 갔다 오는 식으로 그냥 형식
적으로 그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
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주화 위원님 말씀하
신 대로 심의회의 자료에는 그냥 대충 해서
올려놓고 그냥 개념 없이 갔다 와서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다시 고쳐갖고 갔다와 그
러면 심의가 아무 필요가 없죠.

그냥 가야지 뭐 하러 심의를 하고 그래요.
그런 점을 물론 다음 후반기 운영위원장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록에 남
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 수고하셨습니
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보고 청취 안건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의회대표단 공무국의 출장 결과 보고를 누가 하시겠습니까? 채종우 총무팀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종우 팀장

총무담당관실 총무팀장 채종우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대표단 공무 국외출장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주영은 의장님을 대표로 한 총 8명 의회 대표단은 2월 28일을 시작으로 미국 워싱턴주를 방문하여 워싱턴주 의회와 우호협력을 체결하고 koam tv 인터뷰, 시애틀 향만청 이사회 위원장 면담, 주시애틀총영사관 환담 등 총 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2월 28일 귀국하였습니다.

먼저 2월 19일 올림피아에 위치한 워싱턴주의 청사를 견학하고 주 의회 운영을 참관하였습니다.

주 의회 청사는 관광객과 일반 주민들을 자연스럽게 방문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었으며, 의회 운영에도 주민들이 자유스럽게 참관하고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 전북자치도 주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의회, 보다 많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문턱을 낮추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바로 인근에 있는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을 방문하여 숭고한 희생자에 대한 헌화와 애도를 표현했습니다.

매년 워싱턴주와 주 시애틀 총영사관에서는 6.25 전쟁을 기념하고 숭고한 넋을 기리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혀 워싱턴주 관계자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후 테니렉 상원의장 겸 부지사 집무실에

서 워싱턴 주 의회 상원의원 대표와 하원 의원 대표를 만나 양 의회 간 우호 협력을 체결하고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 의회 대표단은 호외 평등의 원칙에 따라 공식 대표단을 상호 초청하여 의회 운영, 환경, 농업, 산업경제, 건설 등에 대하여 활발한 교류 활동을 추진하고 상호 경험을 공유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2월 20일, koam tv 방송국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koam tv는 코리안 아메리칸 텔레비전의 약자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에 기반을 둔 디지털 케이블 네트워크입니다. 워싱턴주 한인 동포들에게 전북특별자치도 소개 및 방문목적과 성과를 말씀드리고 앞으로 교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시애틀 향만청을 방문하여 이사회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샘조 위원장에게 미국 서부 물류 중심인 워싱턴주와 전북특별자치도 간 무역 활성화를 위한 가교 역할을 해주시길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주 시애틀 총영사관 관저를 방문하여 앞으로 워싱턴주와의 활발한 교류와 우호 여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출장은 그동안 중국, 일본, 아시아 국가에 편중되었던 대외 교류를 벗어나 미주 지역으로 범위를 확장하여 다양한 지역의 의회와 우호 협력을 맺기 시작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인 교류 협력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양용모 위원장

최종구 총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용모 위원장

제가 하나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그 앞으로 정기적인 교류를 하기로 했습니까?

○ 채종우 팀장

그렇게 계획은 세웠습니다.

○ 양용모 위원장

계획이 아니고 그쪽하고 합의를 했냐고요?

○ 채종우 팀장

네네

○ 양용모 위원장

아 그래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기 위원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요. 정기적으로 교류를 하겠다고 지금까지 보면 맨날 동남아하고 일본만 교류했잖아요.

중국하고 이렇게 어쨌든 간에 여기도 물론 썩 있기는 하지만 저는 앞으로 더 미국 쪽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쪽이라든지 그런 쪽에 하고 교류를 해서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나은 조건 속에서 의회가 운영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벤치마킹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쨌든 정기적으로 교류를 하기로 했

다면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 양용모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심사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괜찮아요? 오셨어요? 행정자치위원회 국외정책연수 기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신 팀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실 팀장 김오신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국외 정책 연수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의원 6명과 전문위원실 직원 3명 등 총 9명이 4월 23일부터 6박 8일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과 리옹을 중심으로 정책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출장 목적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의 해법으로 이민 정책과 저출산 지원 정책,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의정 역량을 높이고 전북특별자치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등 도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출장 내용은 인구 소멸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민 정책에 적극적인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도에 적합한 인구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가족 정책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 선진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저출산 극복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 자산을 활용한 지역 균형발전 성공 사례를 살펴보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제안과 의회의 역할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24페이지 출장 일정입니다. 4월 23일 출발하여 4월 24일에서 25일까지 파리에 있는 국립인구연구소와 이민자 지원센터, 이민통합청과 가족 아동 및 고령고등평의회를 방문하게 되며, 4월 26일에서 29일에는 리옹에 있는 국토통합청 리옹 지부와 메트로폴 리옹 의회를 방문하고 4월 30일 복귀하는 일정입니다.

방문 기간과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출장자 업무 수행 내용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연수단을 총괄하고, 위원회 의원들은 이민정책, 저출산 지원 정책, 균형발전 등 각 분야에 대한 자료 조사와 인터뷰를 준비하고, 전문위원실 직원들은 해당 분야에 대한 자료 수집과 일정 관리 등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출장 경비입니다. 의회 예산에서 의원 1인당 450만 원, 직원 1인당 400만 원을 지원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항공 운용 및 자부담 경비는 일정 수립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대 효과로는 해외 성공 사례를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및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있는 전 북의 미래를 대비하는 데 있습니다.

27페이지 방문 기관 주요 내용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국립인구연구소는 1945년 설립되어 인구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공공정보로 관리하며 민간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프랑스 이민자 지원센터는 프랑스 이민자와 난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법적 지원, 인권보호, 생존 기반 지원 및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민통합청은 프랑스 이민정책 실현을 위한 일선 조직으로 이민자의 수용 및 통합, 귀환 및 재통합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가족, 아동, 고령, 고등 평의에는 프랑스 정부가 원활한 가족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가족 아동 및 청소년, 고령자 등의 사회 적응을 위한 각 분야별 자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토통합청 리옹 지부는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역 간 연대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등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정책을 구현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메트로폴 리옹 의회는 프랑스 최소행정구역이며 주민자치단체인 코원에서 주민투표로 선출된 16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력한 지방자치와 주민 참여로 리옹 권역에서 발생한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여 쇠퇴해가는 리옹을 프랑스 제2의 도시로 발전시키는 등 지방소멸 문제를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이 부족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향모 위원장

김오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 양용모 위원장

네. 질의하세요.

○ 김경주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국외 정책 연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라북도 지금 저출산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요.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인 국가적인 어떤 아젠다이기도 한데 정말 준비를 많이 하셔서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주로 이민 정책 저출산 극복의 대안으로 또 저출산 인구 문제 대안으로 이민 정책을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다문화라든지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사실은 특히 프랑스가 그런 거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않은 결혼하지 않은 부부들 거기 동거 가족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들에 대한 어떤 법적 제도적 지원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결혼한 수준과 큰 차이 없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인신고 혼인 신고를 그렇게 하지 않고도 살아도 아이를 키우거나 또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쓰시고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요즘 인구 문제 대응으로 나오는 제도들을 보면 정상적인 결혼을 해서 혼인 신고한 제도권에 들어온 가족 청년 가족들을 위한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고 그래서 결혼 제도권으로 들어오지 못한 그런 가족들도 많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들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데 어려움 없이 또

차별 없이 잘 키울 수 있다면 그것도 인구 정책으로서 굉장히 성공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쉽게 그냥 외국 사람들 외국 노동 인력이나 다문화 가족 이렇게 수용해서 이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도 많이 좀 신경을 쓰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북연구원의 인구정책 관련 연구원들이 파트가 새로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동행하시는 거죠

○김동희 행정자치전문위원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 김경주 위원

가실 수 있으면 같이 가셔도 좋고 거기서부터 좀 요청해서 알아볼 것들 자료 같은 것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가셔서 프랑스가 그런 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알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택이라든지 그냥 아이만 무조건 낳으라고 해서 보육 출산지원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데 어려움 없이 주택 문제부터 주택이라든지 의료, 우리는 결혼하지 않은 부부들은 또 뭐 의료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사각지대에 있더라고요.

아이들 문제도 그렇고 또 보건 이런 문제 그런데 있어서도 혜택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연구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희 행정자치전문위원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전 질문지를 만들어지고 지금 프랑스로 번역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외교부로 지금 공문을 보낼 계

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심의가 끝나면 바로 지금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참고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용모 위원장

답변하실 때는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용모 위원장

프랑스의 저 출산율이 얼마 현재

○ 김동희 행정자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지금 현재 1.7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용모 위원장

우리나라는

○ 김동희 행정자치전문위원

0.72명입니다. 0.72명

○ 양용모 위원장

우리나라가? 프랑스는?

○ 김동희 행정자치전문위원

프랑스는 1.78명

○ 양용모 위원장

몇 년 기준으로요? 2024년 기준이요?

○ 김동희 행정자치전문위원

가임기 여성 기준으로 지금 현재 기준으로 그런 겁니다.

○ 양용모 위원장

2024년 기준으로 그래요? 제가 방금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2021년 기준 1.80 프랑스가 2021년 기준 1.80이고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0.78명인데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 김동희 행정자치전문위원

2023년 12월 말 기준입니다. 이게

○ 양용모 위원장

기준으로 해서 프랑스가 0.

○ 김동희 행정자치전문위원

1.78명입니다.

○ 양용모 위원장

아까 0.78명이

○ 김동희 행정자치전문위원

1.78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0.72명이고

○ 양용모 위원장

네. 더 줄었어요. 우리나라 2022년에 0.78에서 0.72로 줄었는가 봐요.

프랑스는 2021년에 1.80에서 아까 얼마?

○ 김동희 행정자치전문위원

1.78명입니다.

○ 양용모 위원장

1.78명으로. 우리나라보다는 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은 잘 짜고 했는데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이 물론 직원분들도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이 얼마나 이것을 공부를 하고 또 현장에 가서 열심히 또 듣고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계획을 잘 짜도 그냥 그냥 갔다 오면 그리고 이 계획서 전부 우리 직원들이 짠 것 아니에요.

의원님들 참여했습니까?

○ 김동희 행정자치전문위원

의원님들 자문 받아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고요.

○ 양용모 위원장

혹시 이거 계획 짜면서 간담회 같은 거 했어요.?

○ 김동희 행정자치전문위원

간담회를 한 두세 번 했고요. 우리 의회 열릴 때마다 간담회를 몇 번 했고 그다음에 지금 심의가 끝나면 저희들이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 양용모 위원장

이걸 가지고 세미나를 한다 이거죠. 상임위원회에서

○ 김동희 행정자치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 양용모 위원장

꼭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행정자치전문위원

감사합니다.

○ 양용모 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기 위원

가는 건 좋은데 실제 지금 일정을 보면요. 24쪽을 보면 첫째 날 몇 시 비행기 타나 오 후에 가잖아요. 대부분요.

○ 김동희 행정자치전문위원

저희들이 지금 첫날 10시 50분에 인천에서 출발을 하고요.

저희들이 사실 지금 6박 8일로 돼 있는데 6박 7일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4월 30일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4월 29일 12시에 프랑스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인천 도착까지 해서 지금 6박 8일로 돼 있습니다.

○ 김영기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토요일 일요일 께서 기관 휴일이고 이 멀리까지 가서 실제 공식 일정은 3일이잖아요.

○ 김동희 행정자치전문위원

저희들이 지금 휴일은 이틀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 김영기 위원

29일 날도 오전만 하고 비행기 탄다면서요

○ 김동희 행정자치전문위원

네. 12시에 출발할 계획입니다.

○ 김영기 위원

실질적으로는

○ 김동희 행정자치전문위원

6박 7일이 되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주말 안 끼기는 못 했는데 차례 월요일에서
금요일날

○ 김동희 행정자치전문위원

어차피 주말은 끼게 돼 있습니다. 그게

○ 김영기 위원

이제는 뭐한데요? 이틀간

○ 김동희 행정자치전문위원

이틀간은 저희들이 지금 뭐야 프랑스 리옹
에 있는 ‘안시’라고 저희 지금 현재 전라북
도가 지금 10개 시군이 인구 감소를 해가지
고 지금 지방소멸 위기지역으로 지금 지정
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리옹 안시 같은 경우에는 지

금 2004년도부터 그 전에는 전통산업이 이
렇게 발달이 돼서 이렇게 인구가 많이 유입
이 되고 활성화 됐었는데 그 전통산업이 쇠
락하면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치안이 불
안정하고 해서 막 좀 어려웠었는데 2004년
도부터 지금 바이오 산업을 정책을 이어받
아가지고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
고 기업도 한 450여 개 정도 유치가 되고
있고 일자리도 한 1만 5천 개 정도 이렇게
유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시를 휴일에는 그냥 물론 휴식
도 취해야겠지만 그런 지방소멸 극복 도시
를 순회하면서 이렇게 벤치마킹할 계획입니
다.

○ 양용모 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 김경주 위원

저도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뭐 개인적으로 좀 자료도 찾아보고 또
강의도 또 일부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스웨덴 같은 경우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
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왕이면 어차피 이 주제를 가지
고 연구하실 것 같으면 그런 자료도 좀 찾
아보시고요.

한 예로 스웨덴 같은 경우 부부가 우리나라
는 거의 다 그냥 그냥 친정 부모 시부모들
이 봐주거나 아이를 봐줘야 되는 형편이 되
거나 아니면 사람을 써서 봐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크거든요.
근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부부가 부인이 월
수 월수금 반일씩 이렇게 가고 남편이 화목
이렇게 해서 반일씩 가도 월급을 다 줘요.

그 부모 유급휴가제를 활용하면서 그냥 우리는 뭐 휴가제를 가서 그냥 쉬고 나가고 이게 아니라 그 후에도 반일씩 하면서 그러니까 아이를 부인이 출근하는 날은 남편이 보고 남편이 출근하는 날은 아이를 보고 그래서 부부가 키우는 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도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프랑스는 또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것도 좀 보시고 그리고 제가 볼 때 이게 그런 많은 외국의 그런 제도나 사례를 알아봤을 때 이게 전라북도에서 우리가 직접 실행할 수 있는가도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개입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중앙에다가 건의도 좀 하시고 또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뭔가 또 고민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좀 고민하시고 좀 알아보시고 연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 김동희 행정자치전문위원
네. 감사합니다.

○ 양용모 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세요.

○ 손주화 위원
아까 사전 질문지 작성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질문들을 사전 질문지를 작성하시는 건가요?

○ 김동희 행정자치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 손주화 위원

공유가 확실하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답변 온 내용도 공유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작년에 왜 행자위에서 두바이 갔다 오고 나서 그 관련해서 문제 지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로봇 경찰 관련해서 그래서 두바이 스마트 경찰서 로봇 경찰 같은 사례가 올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요.

그거 사례를 보면서 느낀 게 과연 의원님들이 사전에 간담회를 제대로 진행을 했는가? 사전에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질문을 작성했는가? 갔다 오시고 나서 이 결과와 관련해서 왜냐하면 제가 좀 의아했던 게 두바이 스마트 로봇 경찰을 없는 로봇 경찰을 보고 왔다는 답변을 인터뷰에서 그때 발견을 해서 제대로 연수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가셨는지에 대한 의문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오신 내용은 나중에 결과 보고서 보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면 되겠지만 이 사전 질문과 면담 내용 부실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전문위원실에서 좀 많이 신경을 내용 공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공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동희 행정자치전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때 저희들이 물론 해외이다 보니까 자료 조사에 한계가 있기는 물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로봇 경찰을 보러 간 게 아니고 무인경찰서 내에 무인경찰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11개 곳 정도 하고 있는데 무인경찰서 내에 로봇 경찰이 당시 우리가 조사할 때는 있다고 조사가 됐었기 때문에 사실대로 저희들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물론 그런 것들

을 빼고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대로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와 있었고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물론 우리 가기 전에 지금 의원님들하고 사전 세미나도 개최하고 그 질문지도 공유하면서 이러이러 질문도 하셔야 되고 또 저희도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할 진행 계획이니까요. 염려 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저 한 가지

○ 양용모 위원장

예 더 말씀하세요.

○ 김영기 위원

통역은 어디서 구해요?

○ 김동희 행정자치전문위원

통역은 지금 현지에서 지금 프랑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을 구하고 있습니다.

○ 김영기 위원

그런 부분은 전문성이 없는 통역자면 아무리 언어 능력이 뛰어나도 전문적인 것이 안 되면 통역자가 수준을 떨어뜨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우리 지역에서 가서 공부하고 있는 박사 과정이 이런 사람이라든지 해가지고 전문성 있는 사람이 결합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동희 행정자치전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내용을 말도 안 되는데 실제 통역 듣다 보면 4시간 간담회하면 2시간도 실제 활용이 안 되거든요.

○ 양용모 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국외정책연수 계획건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냥 의결하겠습니다.

○ 위원 일동

네

○ 양용모 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국외 정책연수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위원 일동

네

○ 양용모 위원장

반대 의견 없습니까?

○ 위원 일동

없습니다.

○ 양용모 위원장

의원님들의 동의를 있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국외 정책연수 계획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환경복지위원회 국외정책연수 계

확안을 상정합니다.

○ 양용모 위원장

앞으로 나와서 앉아주세요. 김영수 환경복지팀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환경복지팀장 김영수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도의회 정책연수 심의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양용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환경복지위원회 국외정책연수 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출장 목적입니다. 전북 특자도의 환경 정책에 접목시킬 수 있는 모범적 사례 발굴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 수립 선도 지역인 독일, 체코를 벤치마킹하고 우리도 정책의 접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출장 동기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의제인 탄소중립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국제사회의 규범이며 전 세계는 탄소중립의 토대를 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고자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 특자도도 2050 탄소중립 달성과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 정책 대응 추진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 성장, 녹색성장 기본조례 개정 등을 통한 탄소중립 이행을 서

두르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 전북 특자도의회는 2022년 탄소중립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전북 특자도 관련 조례 재개정 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약 151개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지만 규모 있는 경제 국가 중에서 2045년 탄소 중립을 약속한 나라는 현재 독일이 유일한 실정입니다.

독일의 탄소중립 입법정책의 전략 및 목표는 EU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선진적인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2010년 중반까지 전력 생산량의 60%를 화석연료를 생산했던 체코도 2021년 5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45% 감축을 목표로 2030 프라 기후 계획을 발표하고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탄소중립 정책 모범국인 체코와 독일을 방문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 대한 주요 정책 비전 및 전략 공유로 우리 도의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성공 정책 사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 실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중 탄소중립 소외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즉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복지정책 추진 등을 알아보하고자 합니다.

출장 기간은 2024년 4월 24일부터 5월 2일까지 9일간이며, 출장국은 체코 독일입니다. 주요 기관 섭외는 외교부 공공외교총괄과 주 체코 대사, 주 프랑크푸르트 총영사 및 전북국제협력진흥원 등과 함께 진행 중입니다.

출장자는 환경복지위원회 7분 의원님과 전문위원실 직원 3명입니다.

또한 연수 효과 극대화를 위해 환경과 복지 정책 담당 집행부 직원 등 6명이 합동 연수

할 예정입니다.

32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출장 일정은 4월 24일 수요일에 출발하여 체코에서 2일, 독일에서 5일 동안 정책 사례 조사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5월 2일 목요일에 복귀하는 일정입니다.

출장자별 업무 내용은 위원장은 총괄을 담당하고, 위원회 의원들은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 성장 패시브하우스 주거단지 탄소중립 취약계층 보호 정책 분석 등에 대한 자료 조사와 준비를 담당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들은 자료 수집과 보좌 경비 및 일정 관리, 사진, 영상 등 기록물 관리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출장 경비는 의원 1인당 450만원, 직원 1인당 400만 원을 의회에서 지원하고, 초과분은 개인 자부담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5쪽 출장 기대 효과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목적으로 체코와 독일에서 시행 중인 각종 탄소중립 정책과 친환경 기술을 벤치마킹하고 두 국가 간 정책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도 탄소중립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독일의 환경수도인 프라이부르크시청사인 뉴타운홀을 방문하여 건물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 시스템을 살펴보고 우리 도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의 적용 가능 여부 검토 및 사용 후 남은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청사 냉난방 에너지 절감 방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체코 자원 스토어를 벤치마킹하여 나눔을 통한 탄소중립 활성화 방안 등 지역사회에서 쉽게 시도할 수 있는 탄소중립 방안 등을 모색하겠습니다.

○ 양용모 위원장

좀 간단히 좀 해주시기.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이렇게

○ 김영수 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간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이번 연수를 위해 2023년 12월 7일 전문가 활용 간담회를 시작으로 의정발전자문위원회 및 사전 간담회 7회를 통해 알찬 국외 정책 연수를 준비하였습니다.

남은 한 달여 기간 동안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조율로 효과적인 국외연수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외연수 후에도 관련 부서와의 정책 간담회 필요한 경우 관련 조례 개정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연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이 부족했거나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용모 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용모 위원장

계획이 아주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좀 몇 가지 탄소중립이라는 게 우리나라도 지금 정책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게 연수 한 번 갔다 와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탄소 중립을 위해

서 지금 특별히 편성된 예산이 있나요?
우리 전라북도?

○ **김영수 팀장**

네. 집행부 예산까지 아직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북연구원에 탄소중립 센터를 지금 개설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이번에 그 센터장님을 같이 모시고 가서 정책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양용모 위원장**

아니 제가 질문한 건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있을 거예요. 탄소 중립을 위해서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요.

○ **김영수 팀장**

네. 지금 탄소중립위원회가 지금 활동 중이기는 한데요.

예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양용모 위원장**

왜냐하면 연수를 갔다 와서 정책에 반영하려면 예산이 뒷받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가지고 그 도정에 반영을 해야 성과가 나죠. 그냥 연수는 연수, 탄소 정책은 정책, 예산 예산, 따로 가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 그런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서 추구하고 있는 정책 탄소중립 정책이 어느 선이고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편성돼 있고 그럼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갔다 와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것이 주제

가 명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이 탄소중립 연수가 보람이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필요하면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그렇게 다시 검토하세요.

○ **김영수 팀장**

예 알겠습니다.

○ **양용모 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복지위원회 국외정책연수 계획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농산업경제위원회의 국외정책연수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양용모 위원장**

예 김은수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수 팀장**

안녕하십니까? 농산업경제팀장 김은수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독일의 국외정책연수 심의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양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공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산업경제위원회 국외정책연수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연수 배경 및 목적입니다. 농산업경제위원회는 미래지향적인 연구개발특구 농업 금융 분야 등에 대한 해외 비교시찰을 통해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도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연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연수 대상지는 연구개발특구를 조성하여 지역 발전에 필요한 핵심 기술의 기획 및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기업 유치와 산악 협력의 대표적 성공 사례인 대만의 신주시와 최근 정부 정책인 신성장 4.0 전략에 따라 4.0 전략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대만과 싱가포르의 수직농장, 그리고 전북 자치도 특례에도 반영된 금융중심지 및 핀테크 육성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아시아의 금융업인 싱가포르를 연수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 위원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 도정질문 등을 통해 동업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ICT 기반 스마트팜 구축, 투자 유치 및 산단조성 저조에 따른 대안 마련을 촉구하며 현장 방문을 추진해 왔으며, 이와 함께 지역 소멸 위기 상황 타개를 위한 청년 유출 방지책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을 고민하였습니다. 이번 연수 기간은 24년 4월 24일 수요일부터 30일 화요일까지 6박 7일이며, 대만과 싱가포르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연수자는 농산업경제위원회 의원님 6명과 정책연구 및 수행직원 4명으로 총 10명입니다.

이와 함께 집행부 직원 2명이 동행하여 함께 연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 연수 세부 일정입니다.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방문할 분야별 연수 대상 기관은 산단 조성을 통한 기업 유치 및 산학연 협력 분야에서는 창업, 분사, R&D 협력, 창업지원, 기술 이전 등 대만 중소기업의 중심인 ITRI 국책연구기관과 TSMC 본사를 비롯해 500여 개의 하이테크 기업이 입주한 대만의 대표적인 첨단산업단지인 신주 과학단지를 방문하고, 수직농업

분야에서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직 농장인 대만의 예스엘스하이팜, 싱가포르 농업테크 스타트업인 아치센을 방문하고, 금융중심지 및 핀테크 육성 분야에서는 아시아의 금융중심지 및 핀테크 허브 역할을 하며 핀테크 페스티벌의 주최기관인 싱가포르 핀테크 협회를 방문하며 싱가포르의 친환경 도시계획 및 가든 시티 정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싱가포르 시티 갤러리를 현지 시찰 대상으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기관별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연수 경비입니다.

연수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및 환율에 따라 항공은행 체제비, 준비금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책정하였으며, 총 금액은 3781만 4천 원입니다.

이 중 자부담은 180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43쪽 추진 사항입니다.

계획적으로 정책연수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농업분야, 산업 분야, 경제 분야 부서와 소통하며 방문 기관과 방문 국가와 기관을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정책 연수를 내실 있게 준비하기 위해 3월 11일 전북 테크비즈센터 및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하여 도내 연구개발 특구 추진 상황을 살펴보았고, 3월 12일과 13일에는 울산 테크노파크와 에코프로를 방문하여 산단 활성화 방안 및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소멸 방지 방안에 대해 사전 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2개국 대사관과 공식 기관 방문지에 대한 사전 협의를 마쳤으며 방문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정책 연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및 수행 직원의 역할 배분을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농산업경제위원회 정책 연수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본 계획을 승인하여 주시면 농산경위 위원님들의 의정역량을 강화하는 내실 있는 정책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용모 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업경제위원회의 국외 정책 연수 계획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형진 위원

다른 위원회에서는 자부담이 다 있는데 여기는 직원들만 자부담을 하는 겁니까?

○ 김은수 팀장

네. 저희는 방문 대상지가 동남아라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좀 적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 기준에 따라서 의원님들은 공무원보다 여비 기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은 여비로 충분히 가능하고 공무원들은 부족분이 있어서 자부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김은수 팀장

다른 위원회는 유럽이나 이쪽으로 가서 경비가 상당히 초과되는 부분이 많아서 의원님들도 여비가 부족한 상황이고 저희는 그 부분에서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양용모 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제가 한 가지 여쭙 볼게요. 핀테크가 됩니까?

잘 몰라서 그런데

○ 김은수 팀장

핀테크는 금융과 기술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기술 혁신을 통해서 금융 혁신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효율화하거나 새 금융 서비스를 출시하는 건데 쉽게 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지급 서비스 또 바이오 인증 이런 것들이 다 핀테크의 일종입니다.

○ 양용모 위원장

그러면 우리 도정에 어떤 점을 지금 보러 가는 거예요?

도정에

○ 김은수 팀장

이번에 전북특별법에서 저희가 특례를 지정했는데 그중에 금융산업 분야에서 핀테크 산업이나 또 마트에서 금융 인력 양성 이런 부분이 포함돼 있어서 저희가 싱가포르가 지금 금융 중심도시고 핀테크의 선구자라서 그쪽 부분에서 지금 좀 비교 견학할 예정입니다.

○ 양용모 위원장

그 옆에 계신 분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보세요. 더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하든지 될 알려주려고 자꾸 하니까 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농산업경제위원회 국회 정책연수 계획에 대해서 원안 가

결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교육위원회의 국외정책연수 계획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남형진 위원

뭐 위원장님 설명을. 다른 건 다 봤으니까 제안 설명만 간단하게 좀 해주시라고

○ 양용모 위원장

네. 그러기에 앞서 심사에 앞서서 공무국에 출장에 관한 조례 제5조 제량의 단서에 의해서 제척 사유 있는 분들은 자리를 이석해 주셔야 해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하시러 꼭 오세요.

제안설명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평곤 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건설안전전문위원실 팀장 김평곤입니다.

저희 문화건설안전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2024년 국외 정책 연수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장국은 영국 런던 옥스퍼드 맨체스터 일원이고 기간은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7박 9일 일정입니다. 먼저 출장 목적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건설안전전문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 관광, 건설, 도시재생과 개발 등의 분야와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시설 복합화와 방과 후 돌봄시설 등 다양한 교육 환경 활용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의정활동 역량을 높이고 도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출장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건설안전전문위원회 소관으로 유희시설 부지 및 노후화된 원도심을 성공적으로 활성화시킨 영국의 도시재생 성공 사례를 견학하고 우리 도의 도시재생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관리, 보존하고 있는 영국 박물관 등의 브랜드를 견학하고 지역 주민 프로그램 등 지역 사회 커뮤니티 역할을 하고 있는 국립박물관의 사례를 연구하여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으로는 다양한 교육 환경과 방과 후 돌봄 시설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양하게 복합화하여 성공한 사례를 연구하고, 학력 인구 감소로 학교 통폐합과 지역사회 해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 유희시설을 지역사회 요구에 맞게 공유하고 커뮤니티 허브로서 성공한 사례를 연구하여 우리 도에 맞는 교육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참고하고자 합니다. 저희 출장 인원은 총 17명으로 의원님 13명과 전문위원실 4명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도청과 교육청 관련 부서 각 2명씩 4명이 이번 연수에 같이 하겠습니다. 출장 일정을 말씀드리면 4월 22일 월요일에 출발하여 런던 옥스퍼드, 맨체스터 등에 위치한 기관과 시설을 방문하여 우수 정책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4월 30일 화요일 한국으로 복귀하는 일정입니다.

방문 기간과 업무 내용은 뒤쪽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장자별 업무 내용을 보면 각 위원회 위원장님은 연수를 총괄하시고, 위원회 의원님들은 문화유산, 도시재생, 문화체육, 학교복합시설, 교육, 돌봄 서비스, 교육 환경 분야에 대한 자료 조사와 준비를 담당하십니다. 각 전문위원실 직원들은 해당 위원회 관련 자료 수집과 보좌, 일정 관리, 경비 집행 업

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연수 경비를 보면 의원님은 1인당 573만원, 직원은 508만원 정도로 예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는 개인 자부담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준비금은 여행자 보험 경비이며, 항공 운임과 자부담 경비는 일정 수립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출장 목적과 내용같이 두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선진사례 시찰을 통해 우수 정책을 우리 도와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은 참고한 자료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문 기관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현황과 기관 정보, 방문 목적 등은 기술한 것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국 박물관은 세계적인 박물관으로 다양한 콘텐츠 트렌드, 그다음에 운영, 홍보 전략 등을 선도하고 있고, 크레스트우드 학교는 1982년에 개교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양한 교육 환경과 시설들을 복합화한 곳이며, 로지힐 커뮤니티센터는 학교시설과 최첨단 체육관, 컨퍼런스 시설 등 현대적인 커뮤니티 센터를 구축한 곳입니다.

에시몰린 박물관은 옥스퍼드 대학 부속박물관이자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박물관으로 지역사회 행사 프로그램, 다양한 커뮤니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테이트 리버풀은 항만 재개발지구인 앨버트 부두의 창고를 영국 예술재단 테이트가 개조하여 문화도시로 회생시키는 데 기여한 시설이며, 셸포드 부두는 맨체스터의 쇠락한 항구 시설을 활용하여 문화관광공간과 상업시설을 성공적으로 조성한 도시재생사업 지구입니다.

런던 시립대학교 도시건축정책연구소는 런던의 주요 도시재생 및 도시경관 정책을 연구하고 유럽 내 전문가들과 도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테이트 모드는 폐쇄된 화력발전소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성공적으로 탈바꿈한 도시재생 프로젝트 공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이 부족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 질의 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용모 위원장

예. 김평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문화건설위원회 전문위원들 오셨어요? 교육위원회는?

○ 서인숙 팀장

교육팀장 서인숙입니다.

교육팀장이 왔습니다.

○ 양용모 위원장

예. 교육위원회 소속이 도청이에요?교육청이에요?

○ 서인숙 팀장

의회사무처 이니 도청입니다.

○ 양용모 위원장

아니 나 교육청에서 또 환원해서 그쪽에서 잡으러 온 줄 알고 여쭙봤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남형진 위원

두 위원회가 같이 가자나요. 연관이 있어서 같이 가시는 거 같은데. 교육위원회 방문 목적을 보면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요즘 이슈가 되는 게 돌봄이 자나요? 돌봄 관련해서는 어디를 방문하시나요?

○ 서인숙 팀장

지금 저희가요 학력 인구가 이렇게 감소돼서 지금 학교를 통폐합하게 이렇게 앞으로 진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교육부에서도 지금 공모를 하거든요. 통폐합 학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런 공모를 함으로써 저희가 지금 그래서 영국 런던에 있는 학교들이 주로 거기서 최초로 이렇게 실시를 했거든.

○ 남형진 위원

아니 통폐합 말고 돌봄 관련해서

○ 서인숙 팀장

돌봄 관련해서는요. 지금 그

○ 남형진 위원

학교 한 군데 있는데 여기 말하는 건가요?

○ 서인숙 팀장

저 크레스트 우드 중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 남형진 위원

한 군데만 방문하시는 거예요?

○ 서인숙 팀장

크레스트우드하고요. 그 뒤에 로즈 커뮤니티 센터 센터에 두 군데를 방문해서 저희가 선진 사례를

○ 남형진 위원

여기를 방문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시스템하고 뭐가 다른 게 있어서 방문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되는 게 교원들하고도 문제가 되고 지금 시간 관련한 것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잖아요?

정부에서 지금 돌봄 학교 늘리라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여기 다 포함을 해서 지금 연수를 가시는 건가요?

○ 서인숙 팀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 양용모 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분 저 마이크 좀 꺼주세요. 남영진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 이종린 위원

영국의 53쪽 한번 보세요. 53쪽에 53쪽 보시면 출장 일정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9일 동안 영국에 계시는데 이 출장의 목적이 교육과 교육제도 선진 교육제도와 도시재생을 통한 관광 부분에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세 가지 목적을 충족하는 세계적으로 성공을 해서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광객이 모이고 또 많은 벤치마킹을 하는 영국의 대표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코벤티리 시티라고, 웨스트미들랜드 쪽에 있어요. 거기는 1940년대 2차 대전 때 독일군 원래 철강산업 도시입니다.

코벤티리가 그런데 거기가 1940년대 독일군의 집중 폭격으로 코벤티리 대성당을 포함을 해서 완전히 재가 되버린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그런데 거기서 영국 정부에서 도시재생과 고디바 초콜렛 아시죠?

고다이바 부인의 전설을 스토리텔링해가고 완전히 잿더미에서 지금 세계적인 관광목적지로 육성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관광 목적지로 굉장한 관심을 끌고 있는 도시고 또 거기에 코벤티리시 내에 코벤티리 대학이 있어요.

거기 코벤티리 대학은 캠퍼스 경관도 굉장히 아름답지만 거기서 1년, 2년, 3년에 단기 과정을 여러 가지로 운영을 해서 전 세계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이 유학을 가고 싶은 학교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목적을 다 포함하고 있는 코벤티리시가 한 번 벤치마킹하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을 보니까 26일 날 맨체스터에서 끝나서 27일 28일은 런던을 가지는데 런던에서 이틀 동안 기관 방문이나 그런 스케줄이 없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코벤티리 시티가 맨체스터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니까 맨체스터에서 출발해서 런던에 가서 무슨 이틀간 노 스케줄러 물론 다른 관광지 하시겠지만 맨체스터에서 코벤티리시 티를 들렀다가 런던으로 빠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 제가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코벤티리 시티에 무슨 기관 섭외는 안 하셔도 도시재생을 한 사례라든지 그 눈으로만 보셔도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정을 참고하시라고 제가 참고 사항을 하나 말씀드린 겁니다.

○ 양용모 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주 위원

교육위원회 쪽에서 보시고자 하는 것이 지금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가 통폐합되고 그러다 보니 학교 유휴시설 같은 거 어떻게 활용할까 또 교육 환경이나 방과 후 돌봄 시설들 어떻게 할까 이게 상당히 고민이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도의회의 위원들만 가시는 건가요?

○ 서인숙 팀장

교육청 관계자도 같이 교육청 관계자도 부서에서 2명 갑니다. 같이 갑니다. 같이 추진 사업을 같이 나중에 해야 되기 때문예요.

○ 김경주 위원

그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교육청도 굉장히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공감대 형성하고 문제의식을 형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서인숙 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용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여쭙볼게요. 지금 의원들 해외연수 가면 도나 교육청에서 환

송으로 사람이 나오니까요?

○ 서인숙 팀장

아니 안 나옵니다.

○ 양용모 위원장

안 나오죠? 뭐 완전히 그것은 정리가 됐네요. 예 질문하십시오.
예 마이크 켜시고요.

○ 김영기 위원

대규모잖아요. 17명에다가 본청하고 교육청 2명씩 하면 21명

○ 김평곤 팀장

예 그렇습니다.

○ 김영기 위원

항상 많이 갈 때 조심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많다 보면 아무래도 안전도 관리하시기 같이 가시는 분들이 고생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들 대규모로 움직이다 보면 그리고 내가 보니까 왜 같이 갈까 보니까 두 의원이 아주 가까워서 같이 가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위원장들이 그런 느낌을 유사 최근에는 이렇게 같이 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잖아요. 그런데 같이 가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좀 안전에 특히 신경을 써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양용모 위원장

다른 건 몰라도 두 위원장이 전주시의원은 함께 했어요.

제가 하나 여쭙볼게요. 학교를 다니는데 저도 이제 교육위원장 하면서 영국이나 그다음에 아일랜드 학교를 북유럽 쪽에 다 돌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영기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역이 굉장히 문제예요. 통역 교육 전문 용어를 모르는 사람이 통역으로 가면 엄청난 소리를 계속...우리 함께 가시는 분 중에 영어가 능통하신 분 계세요?

○ 서인숙 팀장

그거는 아직 파악은 안 해봤고요. 저희가 이제 가게 되면 현지 통역하고

○ 양용모 위원장

현지 통역?

○ 서인숙 팀장

네. 이쪽에 지금 업체에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 양용모 위원장

유럽에 가면 우리나라든 동남아에서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전문적으로 방문객을 맞아서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어요. 퇴직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쪽 설명하고 하는데 영어로 하기 때문에 그 아까 이 뒤에 교수 계시는데 여기는 가면 그런 문제가 없겠는데 일반적인 학교 가면은 통역을 제대로 모시고 데리고 가지 못하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통역이 되가지고 저는 그래서 그전에 그 자료를 전부 걸어갖고 와서 여기서 번역을 다 했어요. 번역을 다 해가지고 다시 공부를 한 사례도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통역하는 녹음까지도 해오고 그랬는데 전부 엉터리였어 제가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참고하시고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위원 일동**

네

○ **양용모 위원장**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문화건설안 전위원회·교육위원회 국외정책연수 기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기타 위원님들 하시고 싶은 마지막 회의 같은데 뭐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폐회 동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위원 일동**

네

○ **양용모 위원장**

이것으로써 2024년도 제3차 의원 공무출장 심사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